올해도 수없이 많은 트렌드가 등장하고 또 사라졌다. 트렌드의 생명력은 점점 짧아지는 듯하지만, 그 폭과 깊이는 점점 더 확장 중이다.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단순히 유행을 좇는 행위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승 전략일 수도 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선도할 10가지 트렌드를 준비했다.

<트렌드 코리아 2026>을 통해 앞으로 등장할 트렌드를 알아본다

당신이 놓치면 안 될 2026년 트렌드

2026년 꼭 알아야 할 트렌드

휴먼인더루프

모두가 인간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금융, 의료, 공공정책 등 윤리와 책임이 중요한 영역일수록 의사 결정 과정에 반드시 한 번은 인간의 판단과 개입이 들어간다.

1.5가구

1.5가구는 절대 침해받을 수 없는 개인(1)의 자율성을 온전히 지키면서 외부와의 연결까지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결국 1인 가구의 고독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자연 발생적인 실용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제로클릭

알고리즘은 이제 우리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우리 지갑이 열린다. 디지털 생활 전반에 클릭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제로클릭' 시대가 이제 머지않았다.

레디코어

예측이 힘든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기보다 치밀한 대비와 예행연습을 통한 준비(Ready)가 삶의 핵심(Core) 가치가 된 세대가 등장했다. '자기주도학습', '선행학습'이 익숙한 세대의 코호트*적 배경이 작용한 트렌드다.

*동일한 경험이나 특성, 행동 양식을 공유하는 집단

AX조직

동료처럼 AI를 활용하는 조직으로 부서 간 경계나 위아래 직급은 더 이상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프로젝트별 업무가 중심이 된 AX조직에선 유연하고 자율적인 사고로 마치 재즈 뮤지션의 잼세션*같이 즉흥적으로 모여 뭔가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중요하다.

*재즈연주자들이 악보 없이 하는 즉흥 연주

건강지능 HQ

원하는 정보를 마음껏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건강에 관한 한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의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건강에 과몰입하는 것은 늘 경계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는 환경에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지능(HQ)을 높여야 한다.

필코노미

기능과 스펙 대신 제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분이 소비를 이끄는 동인이 됐다. 네니오, 웃프다, 좋은데 싫어 등 감정이나 기분이 점점 세분화하고 있다. 소비자의 기분을 살피고, 맞추는 일이 점점 더 어려운 시대지만 이제 기분이 돈이 된다.

픽셀라이프

픽셀이 모여 해상도를 높이듯 삶의 해상도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일상에서 작게, 많이, 빠르게 경험하고 순간에 몰입하고자 한다. 메가 트렌드에서 마이크로 트렌드로 재편되는 시장에서 찰나를 즐기는 사람들은 끝없는 경험의 방랑자가 된다.

프라이스 디코딩

제품의 가격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마치 암호를 풀 듯 가격을 철저히 해독한 후에 최종 구매를 결정하는 '초' 합리적 소비를 말한다. 이처럼 자신만의 확실한 구매 기준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가격표는 이제 마침표가 아닌 물음표가 됐다.

근본이즘

세상 모든 것을 생성하고 위조하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근본' 즉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말한다. 원조가 주는 안정감과 만족으로 젊은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디지털 이전의 세상에 대한 집단적 향수 또한 '근본이즘'의 또 다른 배경이다.

트렌드 코리아 2026
미래의 창

*본 내용은 <트렌드 코리아 2026> 출판사의 허가를 받고 발췌, 정리한 내용입니다.